

# 조사선 · 묵조선 · 간화선 등 다양

◀참 자아를 찾아 수행을 시작한 사람들은 좌선이라는 형식을 통해 깨달음의 세계에 다가갈 수 있다.



### 박태원 교수의 불교를 보는 인생

무작정 길을 떠났다. 갑자기 전라도 음식이 너무도 먹고 싶어 회가 잔뜩 든 데다가, 겨울 바다의 유혹이 겹쳐 다치고자 차를 몰았다. 이런 충동에 몸을 맡길 때면 꽤나 흥겹다. 배부른 호사겠지만, 가벼운 마음으로 즐긴다.

하루에 두기 이상을 반드시 챙겨야 한다는 것은 보통 일이 아니다. 혼자 사는 사람들의 경우는 특히 그렇다. 겨울엔 취사에 의욕 없고 식도락을 즐기는 것도 아니어서 오로지 의식으로 생존을 유지해야 할 때, 기쁨은 조미료 될 때가 간혹 있다. 정당한 음식이 정말이지 간절해진다. 똑같은 두 세 가지 메뉴를 조합하는 일에 잔뜩 몰입하면 감칠맛 나는 전라도 음식이 아른거린다. '그래, 밥 먹으며 좀 멀리 가보자꾸나' 그렇게 시작한 여행이었다.

여행길에 오를 때마다 느끼는 그 묘한 감상은 '익숙함'으로부터의 이탈'에서 오는 것 같다. 일상의 반복되는 패턴과 환경에서 몸을 뺄 때, 그 어떤 생소한 느낌이 물론 솟구친

며 마음의 경험(경계) 속으로 밀려 들어갈 때는 '달고' 일그러져 있던 마음의 창이, 부처님 법대로 한 생각 들이킬 때면 활짝 열려 세상이 그대로 들어온다.

얼마나 좋은 일상이인가. '지금 여기로' 돌아오는 공부는 이렇게 일상을 온전하게 살려 놓는다. 생각 생각 죽어가던 일상을 생각 생각 살려놓는다. 일상 밖에서 구하려고 부산떨던 그 거창한 몸짓들은, 바로 그 일상에서 모든 것이 풀릴 때 그 지 '허허 그거잖아' 하며 목에 잔뜩 들어간 힘을 풀어놓는다. '일상을 떠나 따로 구하지 말아라.' 바로 지금 그대의 그 마음을 떠나 구하지 말라.' 참으로 빛나는 생명의 희망이 아닌가. 조금 엿보는 것만으로도 이렇게 좋은데, 크게 사무쳐 버린 경지에서는 어떤 것인가.

내내 이 일상일 뿐임을 다지고 돌아오니 편지 한 통이 기다린다. 언젠가 소개했던 정지태님이 또 소식을 주셨다. 무슨 곡절이었던지는 모르나, 수인(囚人)의 삶을 그분은 실

참 자아를 찾기 위해 선(禪) 수행을 시작한 사람들은 좌선(坐禪)이라는 형식을 통해서 깨달음의 세계에 좀 더 다가갈 수 있다.

처음 선을 시작하려는 사람들에게는 앉아 있는 것 자체로도 큰 고통이다. 또 앉았다고 하여 다 똑같은 것은 아니다. 같은 자리에 앉았어도 어떤 종류의 선을 행하느냐에 따라 달라진다.

### 한국 간화선 전통이여

선은 크게 그 내용에 따라 소승선(小乘禪)과 대승선(大乘禪)으로 나뉘며, 불교의 의도(外道禪)라고 부른다.

<안반수(경) > <차제법론 > 등에서 선의 분류를 논하고 있는데, 종일스님은 <도사 >에서 각 경을 등에서 주장하고 있는 여러 선정설을 종합해 외도선 범부선 소승선 대승선 최상승선(最上乘禪) : 여래선이라는 5종으로 정리하고 있다.

또 형식에 따라 선불교의 기본 수행인 좌선(坐禪)을 비롯해 행선(行禪) 외선(臥禪) 등으로 분류할 수 있다.

인도에서 중국으로 건너온 불교는 당대 선종(禪宗)이 발달하면서 조사선(祖師禪)을 형성하고, 송대에 이르러 묵조



### 참불자의 길

### 참선⑥-선의 종류

선과 간화선으로 나뉘게 된다.

조사선은 '평상심시도(平常心是道)'라는 한마디로 요약될 수 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인간의 평범한 일상생활 속에서 창조적인 삶의 사상으로 전개하여, 교화중심으로 전개되던 중국불교를 선승들에 의해 불교의 본래정신으로 되돌아가자는 생활종교로서의 불교를 추구했다.

당대 조사선의 정신을 좌선 실천을 통해 새롭게 체계화한 것이 묵조선이다. 수행과 깨달음을 따로 두지 않고, 우리들의 자성은 본래 청정하고 부처와 같은 지혜와 덕성을 갖추고 있다는 경전의 가르침을 좌선을 통해 실천하는 것이다.

언어와 사랑분별을 떠나 모든 차별을 넘어서 묵묵히 좌선하는 가운데 깨달음의 경지에 도달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같은 송대 묵조선의 가풍은 일본으로 전래되어 일본 조동선을 형성하게 된다.

간화선은 옛 조사들이 깨닫게 된 기연(機緣) 공안을 참구하는 선 수행의 방법이다. 공안을 응용하고 조합하면서 자기의 근원적인 마음을 개발하도록 하는

것이다. 따라서 공안이 타파되기까지 끊임없이 공안과 부딪쳐야 한다. 오직 모든 의심을 한곳에 집중시켜 마음이 흩어지지 않도록 하는 것이 간화선 수행의 핵심이다.

우리나라 불교를 대표하는 조계종은 이 간화선의 전통을 이어받았다. 대부분의 스님들이 안거 때 사찰의 선방에서 하는 선수행법도 바로 이 간화선이다.

### 최근 위빠사나 수행 '붐'

최근에는 위빠사나 수행법이 시민선방 등에서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다. 화두를 의식하는 방법이 아니라 의식의 힘을 강화하는 통찰(알아차림)을 통해서 깨달음을 추구하는 것이 바로 위빠사나 수행법이다.

이 위빠사나는 육신의 동요는 물론이고, 느낌이나 생각 등 정신적 움직임까지 살펴 우리들이 겪게 되는 문제점을 해결하도록 하는데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이외에 참선수행과 염불을 합친 중국 불교의 독자적인 실천행인 염불선이 있다. 일반적으로 염불선이라면 주로 부처



님의 모습을 염상하는 관상염불의 수행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당송대 이후에 정토종이 널리 실천되고 있는 것처럼, 나무아미타불 혹은 나무 라고 임으로 부처님의 명호를 부르는 칭명염불과 선정의 수행을 일체화한 염불선의 수행을 말한다.

이은자 기자 (ejelee@buddhapia.com)

## 일상에서 찾는 행복

다. 일상 결별의 자유, 타성 일탈의 해방감, 낯선 만남이 줄 선생활 등이 어울려 묘한 흥분과 즐거움을 자아낸다. 불박이에 달라붙어 있을 때는 쉽게 놓쳐 버리던 일상 인연의 전모가 눈에 들어온다. 참선과 유사한 국면이 길 떠날 때의 감상 속에 있어 보인다.

길 위에 오르면, 내 일상을 받쳐 주는 소중한 인연들이 새삼 생생하게 떠올랐다. '언제나 내 편이 있다'는 정서적 안정을 든든하게 뿌리내려 주신 부모님, 불화가 기억나지 않는 형제들, 공부 길 올려주신 스승들, 원칙을 중시하며 존중과 신뢰를 가꾸어 가는 직장 인연들, 순박한 제자들, 제 식구 위해 마련한 음식을 '먹어 봐유' 하며 슬쩍 꺼내 놓곤 하는 단골 식당 아주머니, 언제 만나도 한결 같은 선우 인연들. 그 따사로운 마음들을 느낄 때면, 시골집 뒷마루에 앉아 언 땅 녹이는 불발을 온 몸 가득히 담아낼 때의 행복감이 솟는다. 예고의 환영 속에 간헐 있을 때는 놓치고 탄감하던 이 밝고 따스한 생기들이, '나'를 품고 지켜보던 일시에 고스란히 감지된다. '나'를 포획하게 세운 채 몸이

### 한 생각 돌이킬때면

세상이 그대로 들어온다

로 훌륭하게 회향하고 있는 것 같다. 평평한 구도의 긴장을 담은 편지들에 일일이 답신을 못 띄우는 것이 마음에 걸린다.

한데 이번 편지에 담긴 그분의 아픔이 예사롭지 않다. 꽤 면식도 있었다는 세칭 '대도 조세형'의 또 한 번의 비틀거림이 그분에게 한동안 큰 고통이었나 보다. '그러면 그렇지' 하는 듯한 세상의 조소가 거듭 내려는 당신의 노력도 비웃는 것 같아 크게 힘들었다고 한다.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불서를 손에 든 자신의 모습이 스스로도 허식 같아 보일 정도였다. '이 일을 교훈 삼아 중생 습(習)의 그 엄청난 반복적 성향을 직시하며, 그 모든 허물을 훌쩍 제쳐 버리는 마음자리로 돌아갈 것을 다지는 그분의 서원이 참으로 절절하다. 새삼 인생살이의 만만치 않은 무게도 확인하게 된다. 아들이 길으면 밝음도 선명할 터. 언제나 빛나는 일상, 무엇이 그 빛을 가리우는가.

홍순대 철학과 교수



<서장>의 첫머리는 중시랑이 질문하는 편지이다. 여기에서 중시랑은 자신이 공부를 제대로 하지 못한 까닭을 여러 가지 열거하고 대개의 가르침을 구한다. 중시랑의 글 가운데 공부인의 올바른 자세를 보여주는 부분은 바로 발심(發心)에 관한 결의를 보이는 부분이다.

"세운 뜻과 발(發)한 원(願)은 진실로 가벼운 지견(知見)의 사이에 있지 않아서, 깨닫지 못하면 그만이지만 깨닫는다면 반드시 옛사람이 직접 깨달아 얻었던 곳에 곧 바로 당도하여야 비로소 크게 실망으로 여길 것입니다."

발심이란 공부를 하겠다고 마음먹는 것이다. 이 마음먹음에는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 라는 내용이 갖추어질 것이다. 이 가운데 '누가'는 물을 필요가 없으며, '언제'와 '어디서'는 '어떻게'에 포함된다. 그러므로 올바른 발심을

### '서장' 통한 선 공부 ②

## 올바른 발심은 '어떻게' '무엇을' '왜'

위하여 중요한 요소는 '무엇을', '어떻게', '왜'이다.

왜 불교를 배우고 선을 공부하려 하는가? 재물이냐 명예냐 지식이나 건강을 얻기 위하여? 집안에 일이 없기 위하여? 심리적 안정을 찾기 위하여? 이런 것들을 위하여 불교와 선을 공부한다면 그것은 애초에 동기부터 잘못된 것이다. 이런 것들은 모두 복을 구하는 기복(祈福) 행위이다. 불교를 공부하는 목적은 석가모니의 출가 동기를 보면 잘 알 수 있다. 그 동기는 현세의 복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현세가 안고 있는 모든 문제의 궁극적이고 완전한 해결에 있다.

무엇을 선에서 공부하려 하는가? 지식을 공부하려 하는가? 특별한 기술이나 능력을 배우려 하는가? 선을 공부하는 목적이 이러한 것들이라면, 이것 역시 현세에서 조금 더 즐거운 삶을 바라는 기복행위에 불과하다. 현세가 안

고 있는 모든 문제의 근원적 해결을 위한 길은 오직 한 길뿐이다. 그것은 깨달음의 길이다. 현세의 실상을 있는 그대로 깨달아 알 때 현세에 있는 모든 문제가 완전히 해결된다. 이것이 석가모니가 간 길이요, 불교를 공부하는 우리가 가야 할 길이다. 따라서 선을 공부하겠다고 발심한 사람은 반드시 부처나 조사들과 똑 같은 깨달음을 얻겠다고 마음먹어야 한다. 위의 중시랑의 말은 바로 이 발심을 나타내고 있다.

불교나 선을 공부하는 사람들 가운데에는 깨달음을 너무나 먼 길이므로 깨달음에 목적을 두지 말고 더 작은 것에 목적을 두고 공부하자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다. 이들은 불교를 왜곡하고 부처를 비방하는 자들이다. 깨달음이 없으면 그것은 더 이상 불교도

아니오 부처의 가르침도 아니기 때문이다. 또 이들은 깨달음이 결코 도달할 수 없는 이상일 뿐이라고 신비화하지만, 이것 역시 모든 사람이 깨달을 수 있다는 경전의 가르침과는 맞지 않는 말이다. 석가모니는 모든 사람이 깨달음을 얻어 자신과 같이 되기를 원했지만, 범부로 남아서 자신의 추종자가 되기를 바라진 않았다.

어떻게 선을 공부할 것인가? 중시랑은 어릴 때 발심하여 일생 동안 공부하였으나 세속의 여러 가지 일들에 매여서 공부에 전념하지 못한 까닭에 지금까지 공부에 결실이 없다고 고백하고 있다. 흔히 공부를 '일대사(一大事)'라고 말한다. 그것은 이 공부가 살아서 할 가장 크고 중요한 일임을 말한다. 삶과 죽음의 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선의 역할이라면 이보다 더 큰 일은 없을 것이다. 가장 크고 중요한 일이므로 당연히 가장 큰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야 할 일이다. 그렇다고 일상생활과 직업을 포기하고 모든 시간을 바쳐야 한다는 말은 결코 아니다.

가장 큰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 것은 선 공부야말로 일생에 해야 할 가장 큰 일이라고 가슴 깊이 새겨두어서, 언제 어디서든지 공부에 대한 의식이 잠재되도록 하라는 말이다.

즉 명에, 돈, 자존심 등 세속사를 우선순위에 두지 말고 선 공부를 가장 우선순위에 두라는 것이다. 깨달음이라는 일대사는 마치 전쟁에 나간 의사를 생각하는 홀 어머니 심정같이 일부러 생각하지 않아도 늘 염두에 있는 그러한 절실함이 있을 때야 비로소 가능하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



김태원 부시대 강사·철학

전통있는 불교 교육의 명문대학

# 부산불교교육대학

## 신입생 모집

포교사 과정 · 포교사과정 통신반 · 교리반(주·야) · 경전연구과정 · 수취반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본 대학 교무실 (051) 867-9944 로 문의바랍니다.

2001학년도 신입생을 모집하오니 뜻있는 불자들이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바랍니다.

불기 2545년 2월

| 구분      | 제11기 포교사 과정                        | 제11기 포교사 과정 통신반                     | 제6기 경전연구 과정                              | 제17기 교리반(주·야)                      | 제8기 수취반                            |
|---------|------------------------------------|-------------------------------------|--|------------------------------------|------------------------------------|
| 1. 입학자격 | 고등학교 졸업 이상의 남·여                    | 본 대학 포교사 과정 수료자나 동등학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 불교를 바르게 알고 싶은 남·여                        | 수취를 바르게 알고 싶은 남·여                  | 수취를 바르게 알고 싶은 남·여                  |
| 2. 교육기간 | 1년(2001년 3월 ~ 2002년 2월)            | 2년(2001년 3월 ~ 2003년 2월)             | 6개월(2001년 3월 ~ 8월)                       | 6개월(2001년 3월 ~ 8월)                 | 6개월(2001년 3월 ~ 8월)                 |
| 3. 교육일시 | 매주 목·금요일<br>오후 7시~9시               | 매월 강의 태일 16개로<br>수업 7주에 한 번 출석수업    | 매주 수요일<br>오후 7시~9시                       | 주간:매주목,오후2시~4시<br>야간:매주월,화,오후7시~9시 | 매주 목요일<br>오후 7시~9시                 |
| 4. 원서접수 | 2001년 1월 8일 ~ 2월 28일               |                                     |  |                                    |                                    |
| 5. 구비서류 | 입학원서 1통(소정양식), 반 명함판 사진 2매         |                                     |  |                                    |                                    |
| 6. 입학식  | 2001년 3월 2일(금) 오후 7시               | 2001년 3월 7일(수) 오후 7시                | 주 2001년3월9일(목)오후2시<br>야 2001년3월9일(월)오후7시 | 2001년 3월 8일(목) 오후 7시               |                                    |
| 7. 등록금  | 입학금 50,000원(교재제공)<br>수업료 월 40,000원 | 입학금 50,000원(교재제공)<br>수업료 월 60,000원  | 입학금 50,000원(교재제공)<br>수업료 월 30,000원       | 입학금 30,000원(교재제공)<br>수업료 월 30,000원 | 입학금 20,000원(교재제공)<br>수업료 월 10,000원 |
| 8. 특 전  | 수료생은 포교사고시를 거쳐 대한불교조계종 포교사로 필수     | 본대학 학칙에 따라 자격증 수여                   | 수료자는 포교사과정에 우선 입학할 수 있음                  | 수취통역사 자격시험에 추천함                    |                                    |

부산불교교육대학 이사장 박 파 학 장 이하우

# 부산불교교육대학

부산불교회관 5층 (부산시청, 시경찰청 옆)  
☎ (051) 867-9944

## 조계사에서는 불교를 체계적으로 배우고 싶어하는 분들을 대상으로 교육 수강생을 모집합니다

### 불교기본교육(3개월)

- 모집 분야
  - 주간반 : 화·수 오전 10시30분 / 야간반 : 화·수 오후 7시
  - 토요반 : 토요일 오후 3시
- 개강일 : 2월 24일 ■ 수강료 : 50,000원

### 조계사불교대학(2년제)

- 모집 분야
 

|     |                |     |                   |
|-----|----------------|-----|-------------------|
| 주간반 | 월·화 오후 2시 - 4시 | 토요반 | 토요일 오후 3시 - 6시    |
| 야간반 | 월·화 오후 7시 - 9시 | 통신반 | 테이프 발송 인터넷 동영상 강의 |
- 입학식 : 3월 3일(토) 오후 2시, 조계사 대웅전
- 특 전 : 포교사 시험 자격 / 동국대 불교대학원 입학자격/장학금 지급

### 신학강좌·문화강좌

- 육조단경 강의 : 변상섭 선생님('도율 선생, 그건 아니올시다'의 저자)
  - 매주 목요일 오후 2시(3월 15일 개강) □ 수강비 : 100,000원
- 노자 도덕경 강의 : 원주용 선생
  - 매주 목요일 오후 7시(3월 15일 개강) □ 수강비 : 100,000원

## 대한불교조계종 조계사 ☎ 02) 720-1390

www.ijogyesa.net